

반등 노리는 KIA 박찬호 활약 절실

T 타이거즈 전망대

주중 롯데 원정·주말 홈 삼성전
공·수·주에서 반전의 역할을

위기의 KIA 타이거즈가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KIA가 연패탈출을 목표로 손 앤더슨을 전면에서 세우고 사직으로 떠났다. 주중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원정 3연전을 갖는 KIA는 이후 안방으로 돌아와 삼성 라이온즈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가장 믿음직한 앤더슨이 18일에 이어 23일 경기까지 책임지지만 문제는 화력이다.

김도영과 나성범이 집중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 상황, 김선빈과 이창진도 각각 발목과 팔꿈치 부상으로 100%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부상 약재 속 '잇몸'들의 활약이 시원치 않다.

4연패 중인 KIA는 3승 8패, 0.273의 승률로 최하위로 추락했다.

타격 지표를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팀 타율(0.238), 득점권 타율(0.178), 출루율(0.310), 장타율(0.298), 홈런(4개), 타점(26점) 부문에서 최하위다.

나가질 못하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나가도 진루를 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타격 최하위 타이틀을 씌어주고 있는 KIA가 1위를 차지한 부문이 있다. 바로 병살타다. KIA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13개의 병살타를 기록하면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격 페이스가 오르길 기대하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KIA는 홍세완 타격 코치를 1군으로 콜업하면서 타자들 지도에 힘을 보태도록 했다. 병살타를 막기 위한 벤치의 과감한 움직임도 필요하다.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KIA의 답답한 흐름을 보여준 결정적인 두 장면이 있었다.

9일 두산전에서 나온 8회 무사 만루 무산과 11일 한화전 9회말 1사 1·3루 스쿼츠 상황.

두산전에서는 류지혁, 대타 고종욱의 삼진 뒤 한승택의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무사만루에서 단 1점도 뽑지 못하고 2-3, 1점차 패배를 기록했다.

한화전에서는 대타 변우혁의 내야안타로 4-4를 만들었지만 투수 김범수의 날카로운 송구로 홈에 들어오던 이우성이 아웃됐다. 시도는 좋았지만 상황이 따라 움직여야 하는 '셰이프티 스쿼츠'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 경기는 10회 연장 승부 끝에 4-5, KIA의 패배로 끝났다.

과감한 벤치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수들의 집중력이다.

지난 주 KIA에서는 류지혁이 가장 많은 10안타를 만들면서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류지혁이 토타자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테이볼 세터 구성이 요원하다.

KIA 입장에서는 박찬호의 반등이 절실하다.

부족한 화력을 채우기 위해서 '뛰는 야구'도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KIA는 올 시즌 6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KT, 롯데와 가장 적은 도루를 만들었다.

박찬호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42타수 8안타, 0.190의 타율에 그치고 있고 출루율도 0.244에 머물고 있다.

공·수·주에서 역할이 막중한 박찬호가 부진을 털고 반전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손흥민, 주급 3억4000여만원 받는다”

영국 신문 보도 ... 흘란 14억원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에서 매주 3억4000여만 원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16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개 구단별로 주급 상위 3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주급 21만 파운드(약 3억4000만원)를 받아 해리 케인(30만 파운드)의 뒤를 이었다. 이번 페르시치는 18만 파운드를 수령했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은 주급 86만5000파운드(약 14억원)를 받아 EPL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리그 전체 2위이자 팀 동료인 케빈 데브라위너, 리버풀 무함마드 살라흐의 주급 38만5000파운드

보다 2배 이상 많다.

전체 3위는 37만5000파운드를 받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카세미루와 다비드 데헤야의 뒤이었다.

첼시의 주급 상위 3명은 라힘 스티어링, 은골로 캉테, 로멜로 루카쿠다. 이들은 각각 35만파운드, 34만파운드, 32만5000파운드를 받는다.

맨시티 잭 그릴리시와 리버풀 버질 판데이크는 30만파운드, 티아고 알칸타라는 21만파운드의 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널에서 주급 1위 가브리엘 제주스는 매주 27만파운드를 받는다. 그 뒤로는 주급 22만파운드의 토마스 파티와 20만파운드의 올렉산드르 진첸코 순이다.

맨유 마커스 래시퍼드와 안토니, 제이든 산초는 매주 25만파운드를 챙긴다.

/연합뉴스

문동주 160km 문 열다

광주 화정초·무등중·진흥고 졸업... 고2 때 투수 전향 '혹사' 피해



문동주

한화 이글스의 우완 투수 문동주(19)는 올해 프로야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광주 화정초, 무등중, 진흥고를 졸업한 문동주는 지난 12일 KIA 타이거즈전 1회말 박찬호를 상대로 시속 160.1km의 공을 던져 한국 야구 최초로 '160km'의 벽을 깼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해 2022년 신인 1차 지명에서 내야수 김도영을 택하는 바람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선동열도, 고(故) 최동원도,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넘지 못한 큰 벽을 2년 차 젊은 투수 문동주가 뛰어넘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 탈락으로 좌절했던 한국 야구는 문동주로 인해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화정초등학교, 무등중학교 때까지 오래 친구들과 뛰던 키가 작았다. 유독 어깨 힘이 약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내야수로만 활동했다.

이런 환경은 문동주가 정상급 강속구 투수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문동주는 혹사를 피할 수 있었고 어깨 근육을 다치지 않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안전하게 신체 성장을 마친 문동주는 진흥고 2학년 때 투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KIA, 김도영 선택에 한화 유니폼

해머던지기 국내 아버지 영향

하체 훈련으로 부드러운 투구폼

KBO 넘어 세계적 선수 되려면

깨끗한 직구에 '무브먼트' 실어야

그는 본격적인 투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싱싱한 어깨로 시속 150km를 찍으며 단숨에 고교 특급 투수 반열에 올랐다.

투수 활동 기간이 짧은 터라 변화구를 익힐 시간이 부족했다.

고교 3학년 때 커브를 익혔고, 다른 변화구는 한화에 입단한 뒤 배웠다.

최근 결정구로 쓰는 체인지업은 최원호 한화 2군 감독에게 배운 구종이다.

문동주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선수를 거친 문준

흠 장흥군청 육상팀 감독이다.

문준흠 감독이 강조한 건 바로 있었다. 바로 하체 훈련이었다.

'던지기 전문가'인 문 감독은 상체 힘이 아닌 하체 힘으로 공을 던져야 부상 위험이 덜하고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동주는 러닝 훈련 등 하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문동주의 물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투구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완성됐다. 문동주의 직구는 깨끗하다. 큰 변화 없이 곧게 날아간다. 말 그대로 '직구(直球)'다.

사실 문동주의 직구는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나 일본 프로야구의 특급 투수들은 대부분 움직임이 심한 직구를 던진다. 궁극적으로 문동주가 KBO리그를 넘어 세계적인 투수가 되기 위해선 '무브먼트'가 심한 직구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동주도 잘 알고 있다.

문동주는 "솔직히 단시간 안에 움직임이 심한 직구를 장착하는 건 쉽지 않다"며 "새 구종 장착에만 몰두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 던지는 구종에 위력을 더하면서 천천히 발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7위

시즌 5번째 톱10 진입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특급 대회'인 RBC 헤리티지(총상금 2000만 달러) 마지막 날 4타를 줄이며 시즌 5번째 톱10에 진입했다.

임성재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코스(파71-712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솜아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가 된 임성재는 브라이언 하먼(미국),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 등과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17언더파 267타)과는 4타 차였다.

임성재는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7위), 올해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공동 4위), 2월 피닉스 오픈(공동 6위),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공동 6위)에 이어 2022-2023시즌 5번째 톱10 성적을 기록했다.

3라운드까지 9언더파로 공동 16위였던 임성재는 이날 1번 홀(파4)에서 약 11m 버디 퍼트를 떨어뜨린 것을 시작으로 전반에 버디만 5개를 쓸어담으며 기세를 올렸다.

1~2번 홀 연속 버디 이후 5번(파5)과 7번(파

3), 9번 홀(파4) '징검다리 버디'로 순위를 끌어 올렸으나 후반엔 주춤했다.

10~17번 홀에서 연속 파를 기록한 그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여파로 경기의 유일한 보기를 남긴 가운데 경기를 마쳤다.

피츠패트릭은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디펜딩 챔피언 조던 스피스(미국)와 동타를 이뤘던 이전 연장전에서 세 번째 홀 끝에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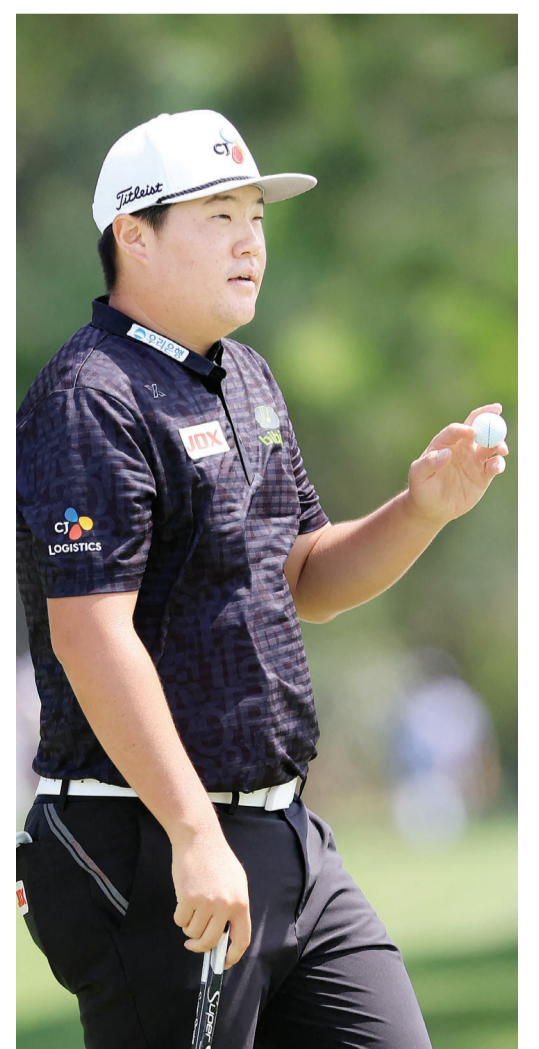
지난해 6월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PGA 투어 통산 첫 승을 거뒀던 피츠패트릭은 PGA 투어 일반 대회에서는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약 47억원)다.

캐틀레이가 3위(16언더파 268타), 젠더 쇼플리가 4위(15언더파 269타)에 올랐고, 세계랭킹 2위 스키티 세플러(이상 미국)가 공동 11위(12언더파 272타)에 자리했다.

지난주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제패하며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온 람(스페인)은 공동 15위(11언더파 273타)로 마무리했고,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공동 25위(9언더파 275타)에 이름을 올렸다. 이경훈은 최종 라운드에서 두 타를 줄여 제임스한(미국) 등과 공동 41위(6언더파 278타)로 마쳤다.

/연합뉴스



임성재